



MVPR-2008-01

# VIP REPORT

2008. 1. 18.

-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이부형, 홍순직, 주원, 허만울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 5

3.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의 시사점과 과제 ..... 19

■ HRI 경제 지표 ..... 22

##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요건 등에 의해 변화된다.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하위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또 다른 요소인 ⑥전반적 행복감과 가중 합산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의 목적은 한국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을 측정하여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매 6개월 마다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제 1회 조사보고서로서 2007년 12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717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경제적 행복도가 낮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이 된 국민들이 스스로 평가한 경제적 행복 수준은 39.9로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한 지수의 구조상 50을 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경제적인 행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여성은 41.4, 남성은 38.2로서 여성의 경제적 행복도가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경제적 행복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 하위요소별로 나누어 보면 5개 요소 중에서 경제적 안정(44.6), 경제적 우위(45.7), 경제적 발전(46.2)은 대체로 양호한 반면에 경제적 평등(25.0)과 경제적 불안(24.5)이 경제적 행복을 가장 크게 저하하였다. 이는 사회 각 부문에서 목격되는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과 상시적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이 경제적 행복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강한 긍정)**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경제적 행복 예측<sup>1)</sup>을 통해 살펴본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이 비록 현실은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적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경제적 행복예측은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한 것이다.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100 미만이면 경제적 행복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영남인들)** 지역별로 보면 전국을 서울권,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으로 크게 나누었을 경우 영남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42.0의 수치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41.6보다 근소하게 앞선 수치이다. 한편, 경기/강원권 주민들은 37.5를 기록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영남거주자들이 경제적 발전과 경제적 평등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과 영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인당 생산액도 높고 고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 행복한 중소도시 거주자들)** 도시 규모별로 보면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대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들 보다 경제적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행복에 대해 41.3,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0.3 그리고 읍면지역에서는 36.0을 부여했다. 전반적인 행복감에서도 중소도시가 43.7로 대도시의 42.1과 읍면지역의 36.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적 기회가 적지 않으면서 집값과 생활비가 대도시에 비해 낮고 환경의 쾌적도가 높은 중소도시의 특징이 경제적 행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을 보이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똑같이 44.0을 기록하였고,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이 35.7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농림수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경제적 기회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농림수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저하되는 현실이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행복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행복한 공무원들)**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의 크기가 13으로 대표성이 떨어지는 전문직을 제외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46.5로 가장 높은 경제적 행복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공무원은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그리고 경제적 발전 부문에 있어서 다른 직업군과 큰 차이를 보이며 각각 69.4, 60.6 그리고 70.0의 수치를 부여했다. 급여생활자와 자영업자간 비교에서는 급여생활자가 자영업자들(37.8)보다 높은 46.1을 기록했다. 이는 수익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자영업자들은 모든 세부영역에 있어서 급여생활자들에 비해 지수가 크게 낮았다.

**(경제적으로 행복한 20대, 불행하다고 느끼는 40대)**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2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그리고 40대가 가장 불행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행복에 대해 20대가 48.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30대 (42.2) 그리고 40대 (37.1)의 순서로 낮아지다가 50대 (42.8)에 일시적으로 회복하지만 60대 (33.5)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대는 경제적 발전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67.0을 기록하였고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도 38.8로 가장 낙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의 차이는 각 연령대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는 자기수입이 생길 경우 구매력이 커지면서 소비를 통한 경제적 행복감을 느끼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나 자녀교육비 또는 주택구입 비용 등의 큰 지출로부터 오는 압력에서 자유로워 경제적인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또한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기로 그만큼 경제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 가장 낮은 33.5를 기록한 60대는 그만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60대의 불안한 경제적 상태는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이 100 이하인 93.0을 기록한 것으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소득, 자산 그리고 학력에 비례하는 경제적 행복)** 소득, 자산, 학력은 모두 경제적 행복과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 학력과 직업 그리고 소득이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높은 학력은 좋은 직업과 높은 소득 그리고 그만큼 높은 안정성과 발전성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 더 행복한 미혼(未婚)자들)** 결혼 여부별로 보면 결혼과 경제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기혼(既婚)자’들이 38.5를 기록한 반면에 ‘미혼(未婚)자’들은 47.0을 기록하여 미혼자들이 훨씬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집계되었다.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그리고 경제적 불안 등 모든 세부 영역에 걸쳐 미혼자들이 기혼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미혼자들보다 기혼자들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봉착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

### 3.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의 시사점과 과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델은 영남권의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대졸이상의 20대 미혼 여성 공무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경제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현 필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었지만 한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았다. 1만 달러 시대와 비교하여 소득은 두 배가 되었지만 물가상승률, 사교육비, 주거비용 등 삶의 질과 행복은 보장받기 위한 비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두 배된 소득이 두 배의 행복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민 체감경기를 활성화 하고, 실생활 비용을 줄이는 등 수치가 아닌 생활밀착형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 해소가 경제적 행복감 향상의 열쇠)**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25.0)과 경제적 불안(24.5)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행복감이 경제적 불평등과 물가, 실업률 등의 경제적 불안요소에 크게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양극화의 말단에 있는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등 경제 불평등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사회복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최고 수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물가와 생활비를 낮추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불안을 해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정책 실현이 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자세는 현실에 대한 높은 불만과 미래에 대한 높은 긍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상태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이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병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위해 기울일 노력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괴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경제적 성장의 ‘과실(果實)’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요소로 변화될 수 있음도 의미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정책 실현이 요구된다.

#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 경제적 행복지수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 향후 반기 1회씩(6월, 12월) 경제적 행복지수를 발표하고자 함

###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연산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sup>2)</sup>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반반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예측 조사)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 와 ‘아니다’ 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 가 60% 이고 ‘아니오’ 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2) 계산방식과 가중치는 경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호감도지수 (CFI, Corporate Favorite Index)의 계산방식을 준용함

##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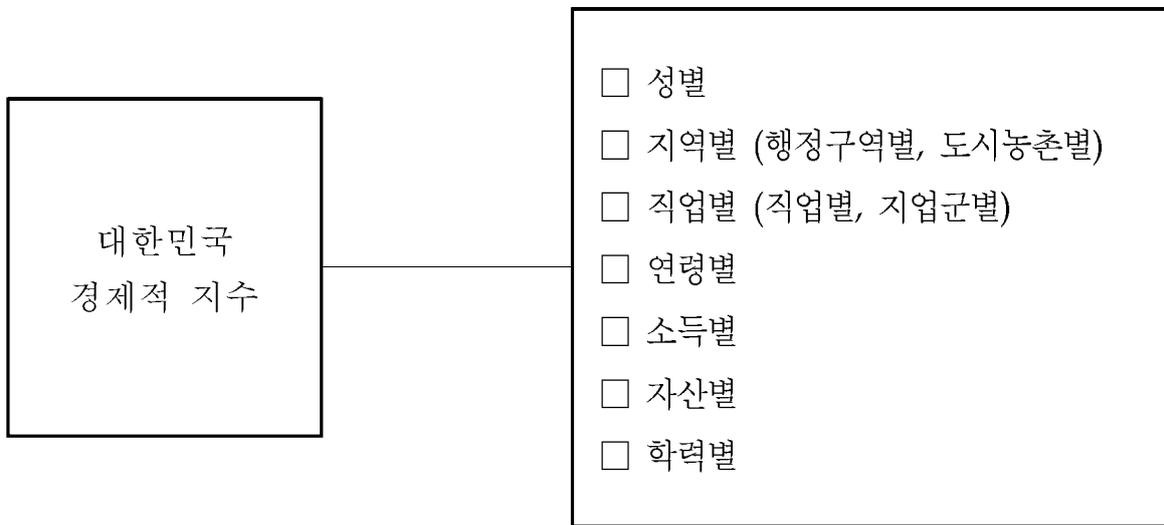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07년 12월 3일 ~ 12월 10일(6일간)
- 조사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717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일산/분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결과 분석



※ 기타 GRDP 등 다양한 지표와 비교 분석이 가능

## 2. 조사 결과

### ○ 경제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이 된 국민들이 스스로 평가한 경제적 행복 수준은 39.9로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한 지수의 구조상 50을 넘지 않아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경제적인 행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41.4를 반면에 남성은 38.2를 기록
  - 여성은 경제적 안정 (47.7대 43.7), 경제적 우위 (48.2대 45.3) 그리고 경제적 발전 (48.2대 46.5)에서, 남성은 경제적 평등 (28.4대 22.9) 그리고 경제적 불안 (25.4대 24.8)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경제적인 현실과 남성의 밀착도가 여성의 그것보다 아직 더 높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
  - 가장으로서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은 남성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현실적인 경제문제로 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거의 모든 면에서 경쟁구도가 여성보다는 남성위주로 짜여있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일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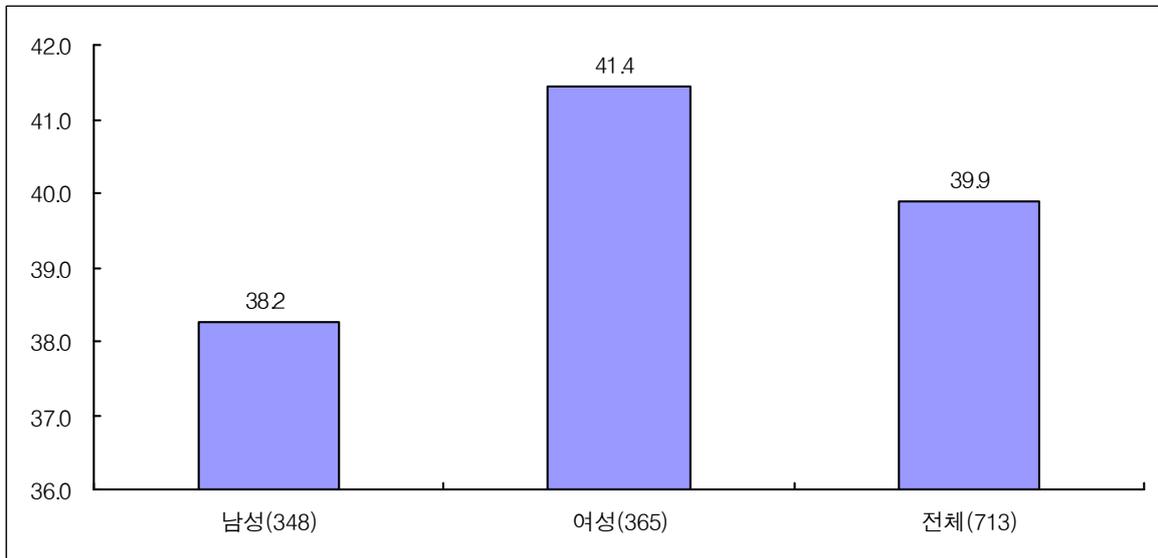
### ○ 경제적 평등과 불안이 경제적 행복을 낮추는 주요 원인

- 경제적 평등과 불안정성에 있어서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표시됨
  - 경제적 안정 (44.6), 경제적 우위 (45.7), 경제적 발전 (46.2) 보다 경제적 평등 (25.0)과 경제적 불안 (24.5)에 있어서 높은 불만족을 드러냄

- 사회 각 부문에서 목격되는 양극화와 상시적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전체/성별 경제적 행복지수>3)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남성 (348)	43.7	45.3	46.5	28.4	25.4	38.6	38.2	135.1
여성 (365)	47.7	48.2	48.2	22.9	24.8	44.5	41.4	137.0
전체 (713)	44.6	45.7	46.2	25.0	24.5	41.7	39.9	136.0



○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강한 긍정

- 우리국민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체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은 100.0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함
- 전체적으로 평가한 현재의 경제적 행복 수준은 39.9로 50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은 전체적으로 136.0을 기록하여 100을 크게 상회

3) 보고서내 모든 표에서 ()안은 응답자의 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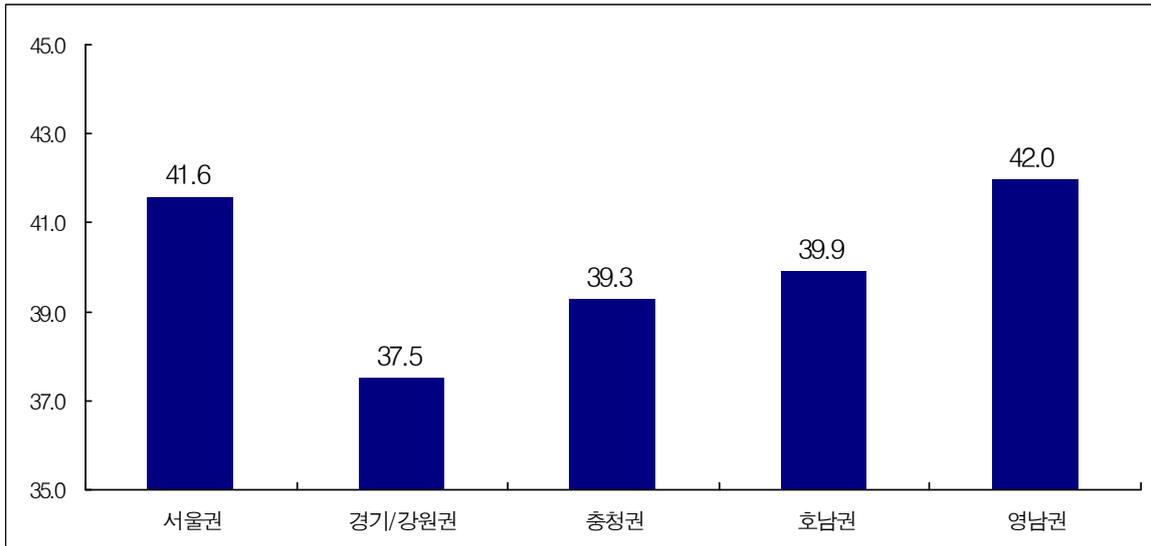
- 혼인 상태별로 분석하였을 경우 이혼자 (66.7), 직업별로 보았을 경우 무직자 (98.4)와 기타직업 (87.0), 직업군별로 본 경우의 농림수산업 종사자 (96.8), 연령별로 살펴본 경우의 60대 이상 (93.0) 그리고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의 중졸이하 (97.5)가 100이하를 기록한 몇 가지 사례
- 이는 우리국민이 비록 현실은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적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 ○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영남인들

- 전국을 서울권,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으로 크게 나누었을 경우 영남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
  - 영남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2.0의 수치를 부여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41.6보다 근소하게 앞섬
  - 경기/강원권 주민들은 37.5를 기록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경제적 발전과 경제적 평등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영남사람들
  - 영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49.7 그리고 경제적 평등에 있어서 29.9로 각각의 범주에서 가장 높은 점수 부여
  - 2위를 차지한 서울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경제적 평등으로 영남이 29.9였던 데 반하여 서울은 19.6으로 거의 10이상 차이가 나며 그만큼 서울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
- 영남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1인당 생산액도 높고 고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작용
  -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계된 2006년 지역내 총생산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영남지역의 1인당 생산 수준은 약 2,803만 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인 서울은 1,949만 원을 기록
  - 2006년의 지역별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영남은 3.1%로 전국 실업률 3.5%보다 낮았고 가장 낮은 호남지역(2.8%)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서울은 4.5%의 실업률로 이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서울권 (163)	47.9	50.3	49.7	19.6	30.7	43.6	41.6	133.7
경기/강원권 (200)	45.9	45.9	45.5	23.4	23.3	38.3	37.5	141.0
충청권 (67)	38.4	45.1	42.5	29.5	28.4	41.8	39.3	140.3
호남권 (86)	51.5	45.1	49.1	31.7	27.0	39.0	39.9	146.5
영남권 (194)	45.4	45.7	49.7	29.9	23.5	45.1	42.0	1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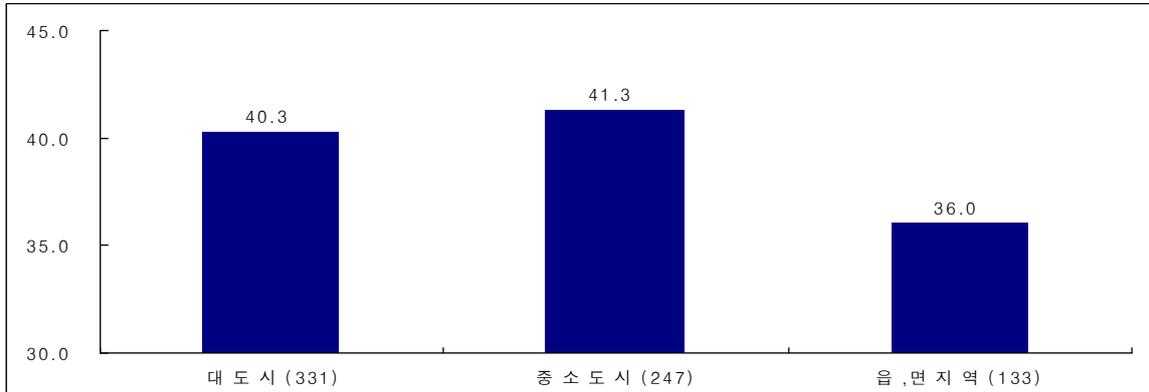


## ○ 경제적으로 행복한 중소도시 거주자들

- 행정구역에 따른 조사에서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대도시나 읍면지역 거주자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것을 나타냄
  -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행복에 대해 41.3,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0.3 그리고 읍면지역에서는 36.0을 부여
  - 전반적인 행복감에서도 중소도시가 43.7로 대도시의 42.1과 읍면지역의 36.1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 중소도시가 제공하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공통의 장점이 경제적 행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있어 중소도시 거주자들은 대도시 시민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각각 47.0, 47.3 그리고 48.2의 수치를 기록
  - 경제적 평등에 있어서는 대도시 보다 높고 읍면지역에 보다 가까운 26.1을 그리고 경제적 안정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26.2를 기록
  - 경제적 기회가 적지 않으면서 집값과 생활비가 대도시에 비해 낮고 반면에 환경의 쾌적도가 높은 중소도시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lt;도농별 경제적 행복지수&gt;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대도시 (331)	47.5	47.2	46.7	24.7	25.9	42.1	40.3	131.7
중소도시 (247)	47.0	47.3	48.2	26.1	26.2	43.7	41.3	139.3
읍면지역 (133)	39.5	44.7	46.8	27.3	21.6	36.1	36.0	1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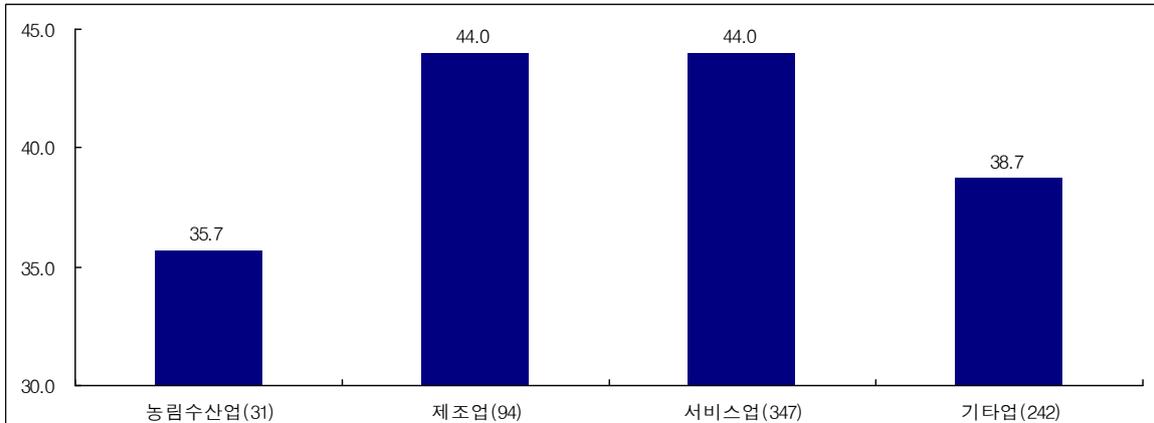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을 보이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들

-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낮은 경제적 행복지수를 기록
  -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같은 44.0을 기록하여 가장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은 35.7로 기타업 종사자들이 보인 38.7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 농림수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저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미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되었으며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로 인하여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어 우리경제의 주력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농림수산업은 더 위축

<직종별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안정	경제적 순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농림수산업 (31)	36.3	48.4	33.9	33.1	20.2	37.1	35.7	96.8
제조업 (94)	47.3	50.3	58.2	29.0	29.3	45.2	44.0	146.8
서비스업 (347)	44.0	45.8	49.1	22.5	25.9	45.2	44.0	146.8
기타업 (242)	49.1	46.9	42.5	27.6	23.0	39.7	38.7	1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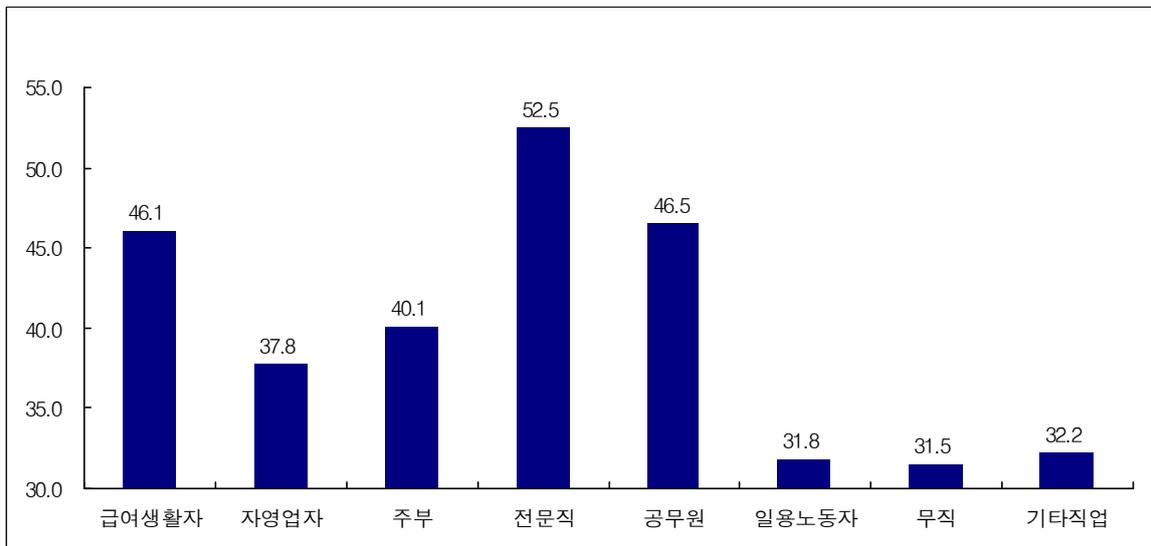
### ○ 경제적으로 행복한 공무원들

-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남
  - 표본의 크기가 13으로 대표성이 떨어지는 전문직을 제외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46.5로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직이 31.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용노동자 (31.8), 그리고 기타 직업자 (32.2)의 순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급여생활자가 자영업자들 (37.8) 보다 높은 46.1을 기록
- 특히 공무원은 경제적 안정성과 발전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직을 제외하였을 경우 공무원은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그리고 경제적 발전 부문에 있어서 다른 직업군과 큰 차이를 보이며 각각 69.4, 60.6 그리고 70.0의 수치를 부여
  - 경제적 불안에 있어서 공무원은 31.3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급여생활자들의 31.4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여생활자들과 자영업자들 간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는 저수익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그리고 경제적 불안의 모든 세부영역에 있어서 급여생활자들에 비해 경제적 만족도가 크게 낮다는 것을 드러냄

- 경제적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는 40.7로 주부들이 기록한 41.9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급여 생활자들의 63.4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 한 원인일 수 있음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급여생활자 (202)	49.3	53.3	63.4	25.5	31.4	47.5	<b>46.1</b>	156.4
자영업자 (158)	39.9	43.0	40.7	24.7	23.7	41.1	<b>37.8</b>	131.6
주부 (139)	49.1	47.8	41.9	25.0	23.4	42.8	<b>40.1</b>	135.3
전문직 (13)	73.1	53.8	61.5	15.4	51.9	53.8	<b>52.5</b>	184.6
공무원 (40)	69.4	60.6	70.0	21.3	31.3	42.5	<b>46.5</b>	170.0
일용노동자 (74)	37.5	35.5	36.8	20.6	15.5	34.5	<b>31.8</b>	102.7
무직 (63)	35.3	37.3	25.8	35.7	17.9	32.5	<b>31.5</b>	98.4
기타직업 (23)	37.0	48.9	31.5	35.9	16.3	30.4	<b>32.2</b>	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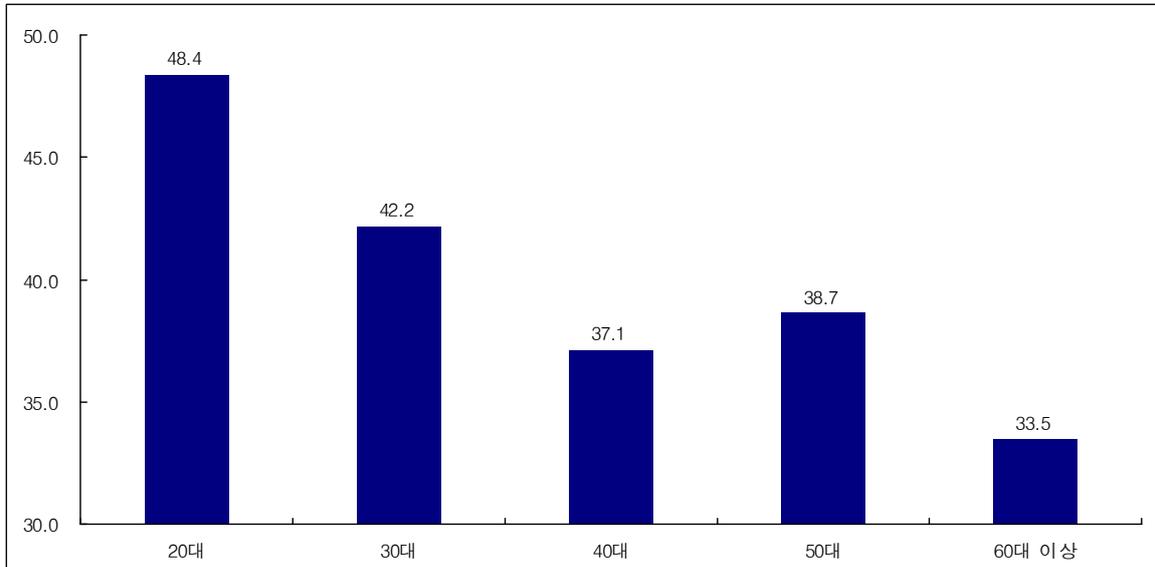


## ○ 경제적으로 행복한 20대, 불행하다고 느끼는 40대

-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2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그리고 40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행복에 대해 20대가 48.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30대 (42.2) 그리고 40대 (37.1)의 순서로 낮아지다가 50대 (42.8)에 일시적으로 회복하지만 60대 (33.5)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
  - 20대는 경제적 발전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67.0을 기록하였고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도 38.8로 가장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에 따른 경제적 만족도의 차이는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
  - 20대는 구매력이 커지면서 소비를 통한 경제적 행복을 맛볼 기회를 얻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나 자녀교육비 또는 주택구입 비용 등의 큰 지출로부터 오는 부담이 작아 경제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4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또한 가장 크게 요구되는 시기로 그 만큼 경제적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음
  - 가장 낮은 33.5를 기록한 60대는 그만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이 100이하인 93.0을 기록한 것으로도 지지 가능

## &lt;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gt;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20대 (125)	55.6	56.0	67.0	26.2	38.8	48.0	48.4	174.4
30대 (168)	47.9	49.0	60.4	21.4	25.7	43.5	42.2	153.6
40대 (166)	41.7	41.4	47.4	21.7	24.7	38.9	37.1	131.3
50대 (125)	46.2	45.4	35.4	27.6	18.0	42.8	38.7	118.4
60대 이상(129)	38.6	43.6	22.5	33.3	18.8	35.7	33.5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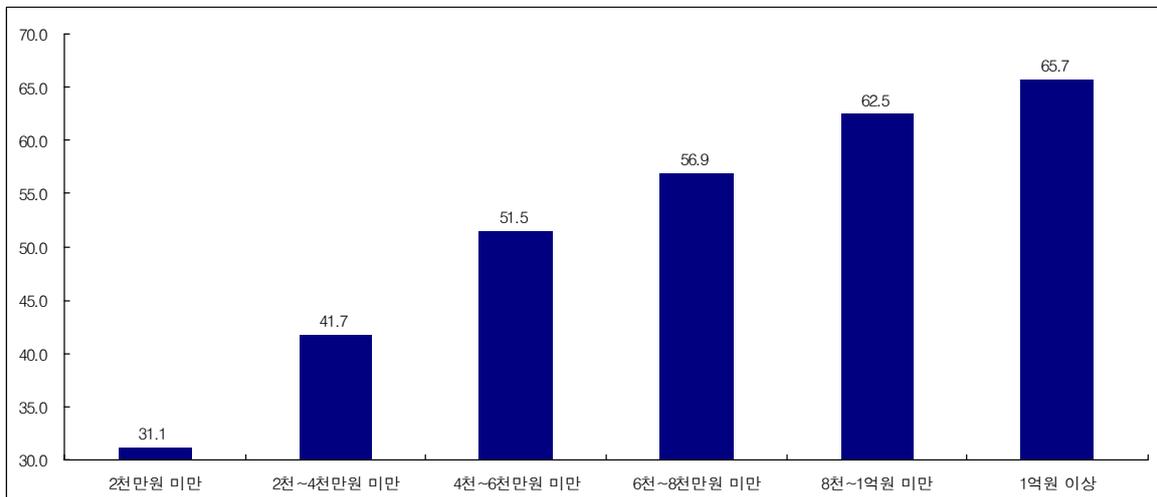


○ 소득, 자산 그리고 학력에 비례하는 경제적 행복

- (소득) 경제적인 행복을 연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행복은 소득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31.1을 기록한 반면에 그 범위가 2,000~4,000만 원인 경우 41.7, 4,000~6,000만 원인 경우 51.5, 6,000~8,000만 원인 경우 56.9를 부여
  - 표본의 크기가 11과 7로 작아 통계적인 대표성이 떨어지는 8천만에서 1억 원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소득구간에서 사람들은 각각 62.5와 65.7을 부여하여 그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보다 높은 경제적 만족도를 기록
  -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항목은 '경제적 발전' 항목으로 2,000만 원 소득대의 35.0에서 1억 원 이상에서 100.0으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115.6에서 무려 200.0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lt;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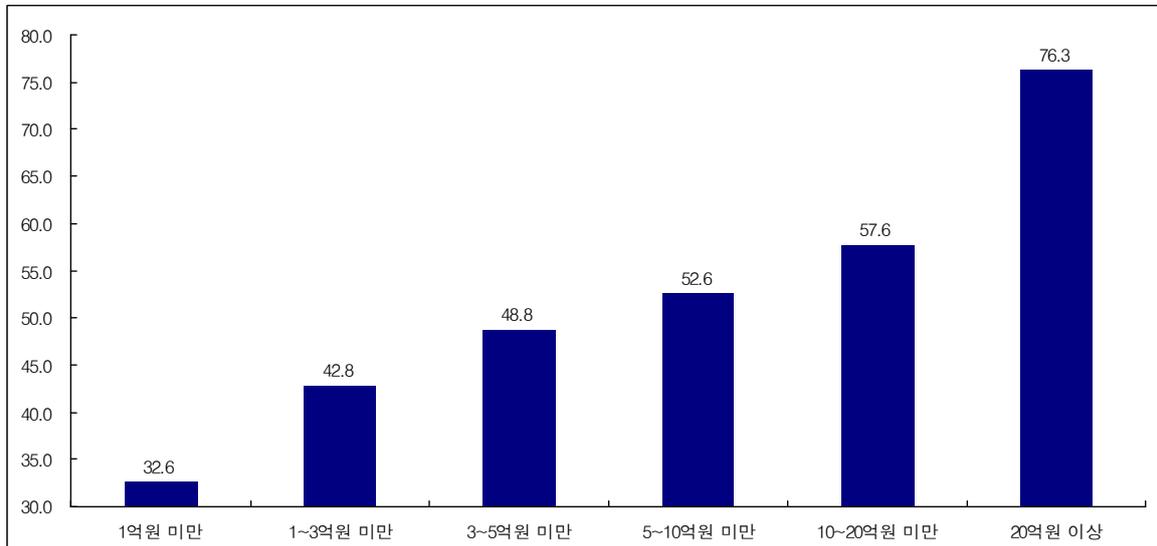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2천만 원 미만(294)	32.8	36.3	35.0	27.2	19.0	32.1	31.1	115.6
2천~4천만 원(275)	48.0	49.6	51.8	24.5	27.8	43.1	41.7	147.6
4천~6천만 원(82)	64.6	57.9	59.8	22.3	29.6	56.1	51.5	148.8
6천~8천만 원(32)	69.5	64.8	68.0	28.9	40.6	59.4	56.9	150.0
8천만~1억 원(11)	79.5	81.8	72.7	22.7	27.3	68.2	62.5	181.8
1억 원 이상(7)	89.3	75.0	100.0	28.6	42.9	64.3	65.7	200.0



- **(자산)** 소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경제적 행복과의 비례관계를 확인
  - 1억 원 미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32.6을 부여한 반면에 1~3억 원 사이에서는 42.8, 3~5억 원 사이에서는 48.8, 5~10억 원 사이에서는 52.6을 기록 하여 자산규모와의 비례관계가 분명히 드러남
  - 표본의 규모가 작은 10~20억 원 구간과 20억 원 이상의 구간을 포함시켰을 경우,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76.3을 부여하여 1억 원 미만의 자산소유자들의 두 배 이상 기록
  -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200.0을 기록하여 미래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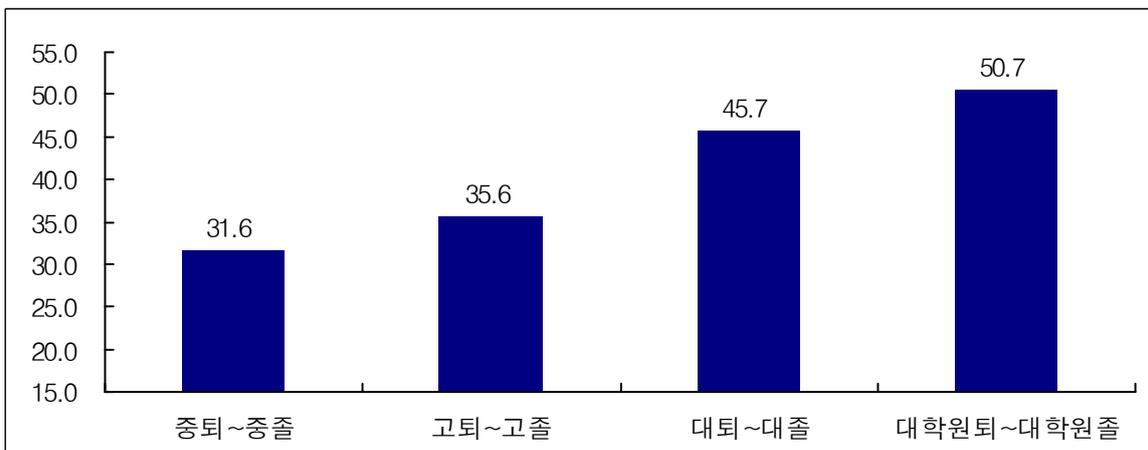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1억 원 미만(341)	35.6	35.0	39.7	24.6	21.3	33.9	32.6	123.2
1~3억 원(192)	49.2	50.3	54.4	27.0	28.4	43.8	42.8	151.0
3~5억 원(77)	60.7	63.3	47.7	26.9	26.3	52.6	48.8	135.1
5~10억 원(54)	56.9	65.3	56.0	27.3	24.5	59.3	52.6	137.0
10~20억 원(19)	77.6	81.6	61.8	28.9	36.8	57.9	57.6	168.4
20억 원 이상(8)	87.5	90.6	87.5	15.6	43.8	87.5	76.3	200.0



- **(학력)** 응답자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행복의 관계도 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남
  - 중졸이하에서는 31.6을 부여하였지만 고졸 이하에서는 35.6, 대졸이하의 구간에서는 45.7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0.7을 기록
  - 경제적인 행복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순서대로 97.5, 121.6, 157.7 그리고 176.5를 기록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높아지는 경제적 발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
  - 학력과 직업 그리고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높은 학력은 좋은 직업과 높은 소득 그리고 그만큼 높은 안정성과 발전성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대로 반영

## &lt;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gt;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중퇴~중졸 (119)	34.0	37.8	26.3	32.8	15.3	34.0	97.5	31.6
고퇴~고졸 (250)	40.2	40.8	38.5	22.5	23.9	38.0	121.6	35.6
대퇴~대졸 (307)	53.1	53.3	59.9	25.7	29.2	47.2	157.7	45.7
대학원퇴~대학원졸(34)	66.9	66.9	75.0	22.1	33.1	48.5	176.5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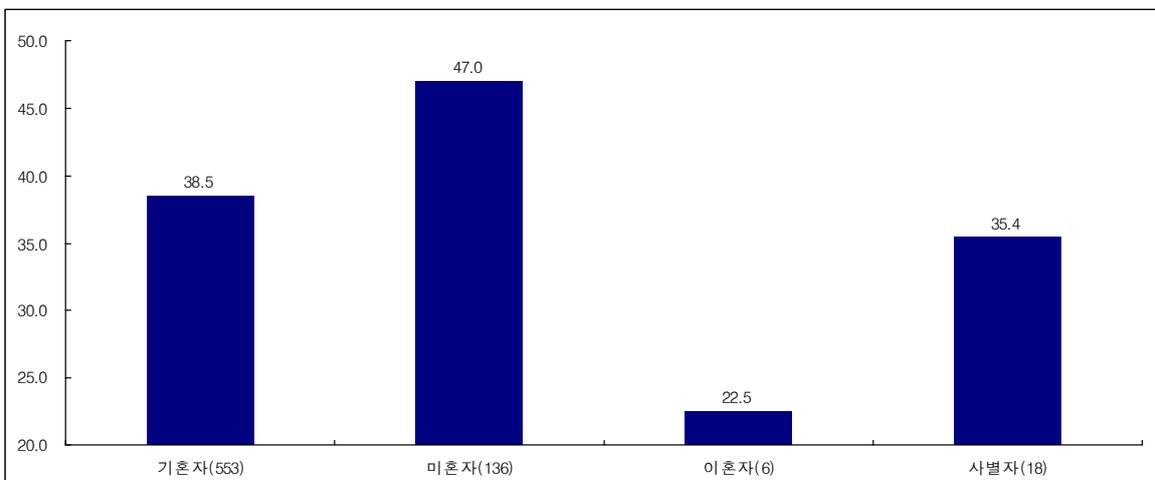
## ○ 경제적으로 더 행복한 미혼(未婚)자들

- 결혼과 경제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인 행복을 바라보는데 있어 '기혼(既婚)자'들이 38.5를 기록한 반면에 '미혼(未婚)자'들은 47.0을 기록하여 훨씬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그리고 경제적 불안 등 모든 세부 영역에 걸쳐 미혼자들이 기혼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상대적으로 젊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는 미혼자들의 특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임
  -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서 50을 넘어 미혼자들이 경제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는 64.0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표출되고 있으며,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 167.0으로 기혼자의 129.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혼자들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더 직접적으로 봉착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됨
  - 기혼자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 자녀교육문제, 주택문제 등 미혼자일 때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
  -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아 통계적인 대표성은 없지만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 져야 하는 이혼자들과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행복감이 각각 22.5와 35.4로 낮다는 것 또한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EHI)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기혼자 (553)	45.0	45.0	43.0	25.1	22.6	40.6	38.5	129.5
미혼자 (136)	52.4	54.6	64.0	26.5	37.3	47.1	47.0	167.6
이혼자 (6)	16.7	37.5	45.8	25.0	16.7	16.7	22.5	66.7
사별자 (18)	27.8	45.8	31.9	36.1	18.1	38.9	35.4	111.1



### 3.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영남권의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여성 미혼 공무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 ○ 현재의 경제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현 필요

-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었지만 우리국민이 느끼는 현재의 경제적 행복감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기에 높아진 소득을 경제적 행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구현이 필요
  - 1만 달러 시대와 비교하여 소득은 두 배가 되었지만 물가상승률, 사교육비, 주거비용 등 삶의 질과 행복은 보장받기 위한 비용이 급상승
  - 두 배된 소득이 두 배의 행복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서민 체감경기를 활성화 하고, 실생활 비용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강화하여야 함

#### ○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 해소가 경제적 행복감 향상의 열쇠

- 우리국민들의 경제적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25.0)과 경제적 불안(24.5)을 해소 하는 것이 가장 시급
  -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행복감이 경제적 불평등과 물가, 실업률 등의 경제적 불안요소에 크게 저해 되고 있음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양극화의 말단에 있는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등 경제 불평등이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사회복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세계최고 수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물가와 생활비를 낮추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불안을 해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정책 실현이 필요

- 우리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자세는 현실에 대한 높은 불만과 미래에 대한 높은 긍정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 같은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상태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이자 부정적인 요인
  -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우리국민이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위해 기울일 노력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
  -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해 준다면 국민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가능할 것
  - 그러나 반대로 현실과 기대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괴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도록 경제적 성장의 '과실(果實)'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요소로 변화될 수 있음도 의미

□ 총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산업전략본부	: 이 주 량 연구 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 예 상 한 연구 위원	(3669-4181, syehak@hri.co.kr)
	: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코스모리서치 (설문조사)	: 홍 유 림 전문 연구 원	(3669-4018, ylhong@hri.co.kr)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P)	2007(E)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0	4.5	5.1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5	4.4	4.6
	민간소비 (%)	7.9	-1.2	-0.3	3.6	4.2	4.3	4.5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2	4.6	5.8
	건설투자 (%)	5.3	7.9	1.1	-0.2	-0.4	2.5	3.8
	설비투자 (%)	7.5	-1.2	3.8	5.7	7.6	7.5	8.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66	61	-30	-5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10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0	3,700	4,11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3.8)	(11.1)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90	4,05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6.1)	(12.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2.8
	실업률 (%)	3.1	3.4	3.7	3.7	3.5	3.5	3.0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5	91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0	5.3